

APRIL  
2021

# M LUXURY



GO OUT!

**sisley**  
PARIS





## CONSTELLATION 41MM

1952년 탄생한 이래, 아이코닉한 '클러'디자인의 컨스텔레이션 타임피스 는 영국, 제네바 등 세계적인 천문대에서 주관하는 정확성에 관한 컨테스트에서 여러차례 세계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오랫동안 위치메이킹 분야에서 정확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한 컨스텔레이션 모델들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계측학 연방학회(METAS)에서 실시하는 테스트들은 위치 메이킹 분야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컨스텔레이션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여 정확성과 성능, 항자성을 증명하였습니다. 혁신적인 위치 메이킹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메가는 모든 시계에 대해 5년간 국제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8가지 METAS 테스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공식 사이트에서 인증서 번호를 입력하면 무브먼트의 작동 성능과 정확한 인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Ω**  
**OMEGA**

<LUXURY M>은 2016년 창간 이래 최고의 프리미엄 매거진 <LUXURY>의 기획과 진행으로 <매일경제>의 주요 지국과 <LUXURY> 독립 배본망을 통해 배포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잇는 시티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입니다.

luxury.designhouse.co.kr

<럭셔리M>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브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직접 올리는 생생한 온라인 취재 현장

luxuryeditors

<럭셔리M> 에디터가 만드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사진 뉴스'



### Hair Ritual by Sisley

'헤어 케어는 새로운 스킨케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론칭한 프리미엄 헤어 케어 브랜드, 헤어 리추얼 바이 시슬리. 헤어 리추얼 바이 시슬리의 모든 제품은 헤어 케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개발되었다. 강력한 식물 활성 성분 컨센트레이트와 에센셜 오일,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등 독창적인 포뮬러로 모발과 두피를 개선해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 CONTENTS



04 HEAD TO TOE  
이달에 알아야 할 정보와 트렌드

06 BUY NOW  
본격적인 봄을 위한 리빙 뷰티 아이템

08 INNOVATOR  
뮤지션에서 회화 작가로, 마이큐

10 ARCHITECTURE  
자연 속 오두막, 마이크로 캐빈

14 TREND  
소셜 미디어를 장악한 가상 인플루언서 6

16 LEISURE  
혼자 야외로 나간다면 챙겨야 할 아이템



22 GROOMING  
4명의 남성이 추천하는 그루밍 아이템

26 DINING  
여유로운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 3

28 DESIGN SPOT  
서울의 향기로운 공간 4

32 CAR  
디지털 론칭에서 주목받은 4대의 신차

36 DRIVING  
GLA로 떠난 성수동 골목 투어

### EDITORIAL

편집 02-2262-7437

편집팀장 이영채 Youngchae Lee · breeze0@design.co.kr

#### FASHION

기자 홍혜선 Hyesun Hong · hhs@design.co.kr

기자 최윤정 Yoonjung Choi · yj.choi@design.co.kr

#### BEAUTY

수석기자 정애경 Aekyung Jung · ak.jung@design.co.kr

기자 이지형 Jihyung Lee · jh.lee@design.co.kr

#### FEATURES

수석기자 김수진 Sujin Kim · jin@design.co.kr

기자 안서경 Seogyong Ahn · seo@design.co.kr

인턴기자 한동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게스트 에디터 이승률 Seungryul Lee

미술장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디자이너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포토 디렉터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포토그래퍼 이기태 · 이경옥 · 이창화

Tone Studio 디렉터 엄정훈 Junghoon Yum

포토그래퍼 황인우 Inwoo Hwang

교정·교열 전남희 Namhee Jeon · 유진희 Jinhee Yu

편집장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 ADVERTISING

광고 02-2262-7401

유통 관리 02-2262-7407

정기 구독 080-007-1200

이사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부장 김수진 Soojin Kim · kimsoojin@design.co.kr

차장 문민혁 Minhyuk Moon · moonmh@design.co.kr

유통 관리 매니저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부장 이진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부사장 김은령 exlibris@design.co.kr

### DESIGN HOUSE INC.

디자인사업부부장 이민형 디자인프레스(주) 대표 겸직 lucy@design.co.kr

전시사업부부장 조상연 이사 Sangyeon Cho · csy@design.co.kr

경영전략부부장 이영임 상무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법률 고문 김영철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KCL)

회계 자문 삼덕회계법인

대표이사·발행인 이영혜

2021년 4월호 통권 제54호. 2016년 10월 12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50. 2021년 3월 28일 발행(매월 발행)

발행 공급처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필름 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

인쇄처 M-print(031-8071-0960)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EDELI  
MADE IN ITALY

현대백화점 본점 3F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F | 현대백화점 판교점 2F | 현대백화점 목동점 2F  
현대백화점 부산점 4F | 현대백화점 대구점 4F | 현대백화점 울산점 2F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2F

# HEAD TO TOE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한 4월. 상큼한 컬러를 입은 패션 아이템부터 봄날에 어울리는 향수, 감각을 깨우는 두 전시와 매력적인 신차까지 다채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글 이영채(LYC)·홍혜선(H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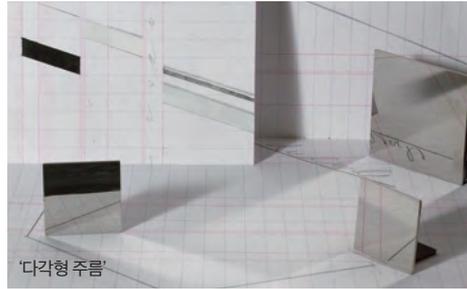
이지형(LJH)·최윤정(CYJ)·한동은(HDE) 기자

## NEW EXHIBITION

<4900가지 색채> 파리의 루이 비통 재단 건물을 건축한 프랭크 게리가 직접 설계한 공간에서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다채로운 색상을 만나볼 기회. '4900가지 색채'는 서로 다른 색으로 구성된 정사각형 컬러 패널 196개를 패널의 사이즈나 조합을 달리해 총 11가지 버전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한국에서 공개하는 것은 아홉 번째 버전. 색상 사이엔 어떤 위계도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스테인드글라스 '돔펜스타'의 제작 과정을 그린 영상도 볼 수 있다.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7월 18일까지. 문의 3432-1854



<언어 깃털>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청각과 시각으로 만나는 감각적인 전시가 열린다. 런던에서 활동하는 박주연은 현대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타지에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서정적으로 표현한다. 악기 조율음, 작가의 글을 여러 언어로 읊조리는 목소리, 새소리 등 다채널 사운드가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작품 '그녀가 노래를 말할 때'를 비롯해 조각 오브제 '눈 먼 눈' 등 신작 5점을 만날 수 있다. 3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문의 3015-3248 (HDE)



## SPRING COLOR



Plan C  
Allbirds

Bottega Veneta

Roger Vivier

PLAN C 반대 지점에 놓인 아이템이나 무드를 섞는 게 요즘 트렌드다. 플랜씨는 방수가 가능한 유틸리티 재킷을 분홍색으로 제작해 실용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감도는 룩을 완성했다. 문의 0507-1344-5944

ALLBIRDS 올버즈가 신발을 만들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올버즈는 자연에서 유래한 소재를 사용하고, 윤리적인 제작 과정을 고집한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부드러운 색조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문의 allbirds.co.kr

BOTTEGA VENETA '살롱 01' 컬렉션에 봄과 찰떡처럼 어우러지는 아이템은 바로 '트라이앵글' 백이다. 나파 가죽을 마치 손뜨개질한 것처럼 엮고 스피어민트, 시그라스, 마카롱, 시슬, 파라킵, 피치 등이름만으로도 구미가 당기는 색감으로 채웠다. 문의 3438-7601

ROGER VIVIER 흔히 '슬리퍼'라고 말하는 슬라이드 물도 로저비비에가 손을 대면 화려해진다. 발등 스트랩 위에 크리스털로 장식한 사각 버클을 엮고, 금색 혹은 민트색으로 제작해 화려하거나 경쾌한, 2가지 이미지를 모두 연출할 수 있다.

문의 6995-3370 (HHS)

## NEW PERFUME

### MICHAEL KORS

핑크 페퍼, 베르가모트의 상쾌하고 생기 넘치는 향을 시작으로 투베로즈, 일랑일랑으로 이어지며 시더우드, 스펀드 같은 따뜻한 향으로 마무리되는 '고저스 오드 퍼퓸'을 출시한다. 문의 3447-9678



### DIPTYQUE

디пти크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공동 창립자의 추억이 깃든 생제르망의 나이트 바 '오르페옹'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향수 '오르페옹 오드 퍼퓸'을 선보인다. 통카빈, 재스민이 어우러지며 감각적인 향을 완성한다. 문의 3479-6049 (LJH)



### JO MALONE LONDON

따뜻한 햇살을 가득 담은 향수 '데이드림 인 컬러' 컬렉션을 선보인다. '레드 히비스커스 코롱 인텐스', '옐로우 히비스커스 코롱', '프랑지파니 플라워 코롱', '나시 블로섬 코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3440-2750 (LJH)



## CELEBRITIES AT THE EVENT



배우 마고 로비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위해 사넬의 2021 S/S 시즌 의상을 선택, 글로벌 앰배서더다운 면모를 자랑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히로인이라 할 수 있는 배우 안야 테일러. 오직 그만을 위해 약 300시간에 걸쳐 완성한 디올 오프 쿠튀르 드레스가 큰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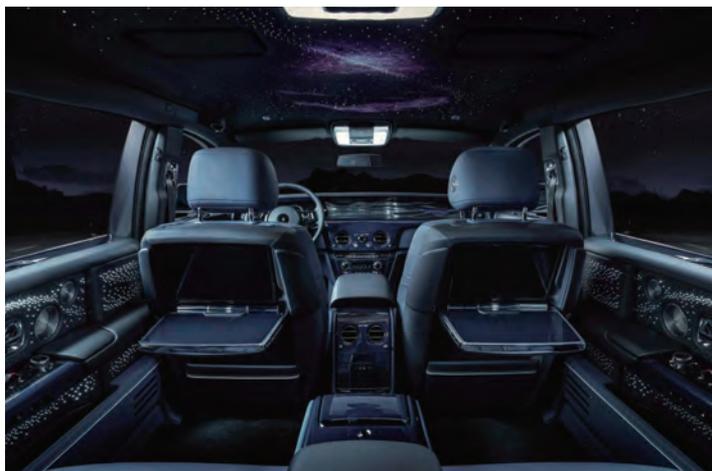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위해 디올맨의 네이비블루 컬러 슈트를 착용한 배우 케빈 베이컨. 중견 배우 특유의 여유로운 멋이 돋보이는 옷차림이다.

사넬의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 배우 시라 하스. 넷플릭스 드라마 <그리고 베를린에서>로 골든글로브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해밀턴의 2021 신제품 프리뷰 행사에서 만난 배우 다니엘 헤니. 클래식한 코듀로이 슈트에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인트라매틱 크로노그래프 H' 위치를 매치했다.

배우 셀마 하이에크 피노는 알렉산더 맥퀸의 붉은색 홀터넥 드레스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기자단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CY)

## CAR OF THE MONTH



### ROLLS-ROYCE

시간에서 영감을 얻은 '팬텀 템퍼스 컬렉션'은 시간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 미학적 주제를 아우른다. 차량 내부에는 롤스로이스의 상징인 센터페시아 시계를 의도적으로 없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으로 완성하고, 우주 먼 곳에 존재하는 중성자 별 '펄사'를 모티프로 제작한 헤드라이너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평범한 대시보드 대신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팬텀 갤러리는 멈춰진 순간의 자유를 의미하는 작품 '얼어붙은 시간의 흐름'으로 장식했다. 도어 안쪽 수백 개의 불빛은 별들의 패턴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전 세계 20대만 한정 생산한다.



### PORSCHE

다재다능한 오프로드 버전의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를 공개했다. 최대 93.4kWh 용량의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기본 탑재했으며, 사륜구동과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한 하이테크 새시로 오프로드에서도 흔들림 없는 역동성을 보장한다. 뒷좌석 헤드룸을 47mm 높이고, 1200리터 용량을 적재할 수 있어 장거리도 여유롭게 주행할 수 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프로드 디자인 패키지는 지상고를 최대 30mm까지 높여 까다로운 지형에서도 주행 가능하며, 기본 사양의 자갈 모드를 선택하면 거친 도로에서도 파워풀한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LYC)

베어브릭은 메디콤 토이의 대표 아트 토이다.  
 짙은 핑크색과 그래피티 아티스트 안드레  
 사라이바 André Saraiva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이  
 특징인 '미스터 안드레 큐브릭'.  
 XX블루 한남점(798-5009)

199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발표한 이후  
 구사마 야오이 草間彌生の 작품 중  
 가장 널리 사랑받고 있는 '펌킨Pumpkin'을 작은 사이즈의  
 아트 토이로 소장할 수 있다. XX블루 한남점(798-5009)



미국 스트리트 아트의 전설  
 케니 샤프 Kenny Scharf의 대표작  
 '스퀴츠Squirtz'. 웃는 얼굴 뒤에  
 놀란 얼굴을 함께 배치해  
 히로에라의 감정을 극대화했다.  
 MGFS100(720-1220)

나라 요시토모 奈良美智의 대표 캐릭터이자  
 아오모리 미술관의 마스코트  
 '아오모리-켄 Aomori-ken'이 저금통으로 탄생했다.  
 XX블루 한남점(798-5009)

# ART TOY

미술관 밖으로 나와 일상에 스며든 내 손안의 아트 작품 8

글 한동은 기자



표정 없는 인물을 유리섬유로 표현하는  
 변경수의 '하이다이버High Diver'.  
 막 도약하려는 포즈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갤러리 오채(414-5070)



카우스 Kaws의 대표 캐릭터 컴패니언이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는 '컴패니언 패싱스루 Companion Passing Through'는  
 2010년 홍콩에서 공개된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다.  
 XX블루 한남점(798-5009)



미키 마우스를 천으로 덮어 씌운 듯한 '할로우 미키 Hollow Mickey'.  
 대니얼 아삼 Daniel Arsham과 디즈니의 협업작으로  
 화이트와 그레이 색상 중 선택 가능하다.  
 XX블루 한남점(798-5009)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 Banksy.  
 2명의 영국 경찰이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그의 대표작 '키싱 쿠퍼스 Kissing Coopers'를  
 아트 토이로 즐길 수 있다. MGFS100(720-1220)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고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하는 '립 글로리파이어'.  
플레드보 보떼(080-564-7700)



AMI

장미, 바이올렛 성분이  
건조한 피부에 영양을 전하는 '너리싱 립밤'.  
은은하게 느껴지는 꽃향기도 일품.  
답티크(3479-6049)



밀랍, 간데릴라 왁스가 입술을  
부드럽게 가꿔주는 '루즈 에르메스 립 케어 밤'.  
에르메스 뷰티(310-5174)



부드럽고 가벼운 제형이 빠르게 흡수되며  
입술을 오랜 시간 촉촉하게 하는 '립 밤'.  
르 라보(3440-2591)



# PERFECT LIP CARE

건조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하며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립 케어 아이템 8.

클 이지형 기자



호호바 추출물, 타히티 블랙 진주가  
입술을 건강하게 가꿔주는 '르 루즈 밤'.  
지방시 뷰티(080-801-9500)

핑크빛 생기를 부여해 립스틱을  
따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퓨어 컬러 엔비 립 컬러 밤'.  
에스티 로더(6971-3212)



Fendi



징크옥사이드가 자외선으로부터  
입술을 보호하고,  
식물성 오일이 풍부한 영양을 전하는  
'프로텍티브 립 밤'. 이습(1800-1987)



풍부한 영양을 더하면서도  
끈적이거나 걸리지 않는 '립 밤'.  
바이레도(3479-1688)





아티스트 유현석

## 창작의 본질을 찾는 여정

뮤지션 마이클로 잘 알려진 유현석이 신사동 이길이구갤러리에서 4월 23일까지 첫 회화 개인전 <What are you doing the rest of your life?>를 연다.

그는 15년간 스스로 작사·작곡 및 앨범을 프로듀싱하는 대중음악가로 살며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다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제 캔버스 위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예술을 풀어내며 창작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글 안서경 기자 | 사진 이우경 기자

영화 <키친>의 OST '일년 후', 배우 공효진과의 듀엣 곡 '나 너를 사랑하니까' 등 감성적 멜로디의 곡으로 알려진 뮤지션 마이큐. 2007년 첫 앨범을 낸 뒤 8장의 정규 앨범을 내고 300회 이상 투어와 라이브 공연을 여는 등 뮤지션으로 입지를 견고하게 다져온 그가 추상회화 작가로서 또 다른 시작점에 섰다. 최근 아홉 번째 앨범을 발매하며 앨범 이름과 동일한 제목의 개인전 <What are you doing the rest of your life?>를 개최한 것. "음악과 미술은 결국 예술이라는 한 범주에 속하지만, 대중음악가의 길을 걸으며 대중성에 대한 고민으로 창작의 한계에 부딪히곤 했어요. 0에서 100까지 창작의 모든 과정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회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다채로운 색, 자유로운 붓질로 완성한 상징과 기호들. 그의 그림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붓을 맡긴 것처럼 순수하고 꾸밈없어 보인다.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나 그려본 적이 없었기에 제게 가장 적합한 작업 방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페인트, 아크릴물감 등 재료에 따라 캔버스 위에 색을 층층이 쌓아 칼로 긁거나 찍어내는 과정을 번주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로 나눠 실험했어요. 손에 힘을 주는 강도, 붓을 쥐는 방법을 매번 다르게 적용해보면서 말이죠." 그의 작업실은 80호가 넘는 커다란 캔버스로 가득하다. 지난해 초부터 매일 13시간 이상 작업에 몰두한 결과물이다. 전시에서는 8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자신의 창작법을 'DubDa(뉘다)'라고 이름 붙였다. 곡을 만들 때 타악기로 리듬을 만든 다음 피아노와 기타처럼 선율을 더하는 악기를 쌓아 올려나가는 것처럼 회화 작업을 할 때도 캔버스 위에 나이프, 붓, 종이, 손 등을 이용해 물감을 칠하고 튀기며 표현한 뒤 바탕색으로 덮는 방식이다.

끊임없이 내면의 사유를 표현하는 일은 예술가의 숙명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뮤지션 마이큐는 예술가의 숙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데뷔 때부터 그는 소속사 없이 자신의 레이블 '큐스테이션QueStation'을 설립해 활동했다. 작사·작곡, 프로듀싱과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전 과정을 맡았다. 창작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기 색이 분명한 음악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장르 구분 없이 신스 팝뿐만 아니라 힙합, 솔, 펑크 등이 가미된 감각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한국 뮤지션 최초로 패션 브랜드 '매즈 키츠네'의 컴필레이션 앨범에 신스 팝 곡 'Live Forever'가 수록되기도 했고, 3집 수록곡 '1Q81'은 하루키의 소설 <1Q84>에서 따와 마니아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8년 디뮤지엄이 '구슬모아당구장'에서 공연을 열 것을 제안했을 때는 단순히 음악 공연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판을 짜고 과거에 촬영한 사진, 영상, 텍스트와 설치미술 작품을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계획했던 국·내외 공연 일정도 모두 취소되자 예술적 영감을 승화할 새로운 창구를 모색했고 그 답을 회화에서 찾았다. 음원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그가 캔버스와 물감으로 새로운 예술에 도전한다는 건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른다.

"뮤지션으로서 제 인생은 실패라고 생각했었어요. 부



New Normal Series 'Like my baby nephews'



Poetry Series 'The journey to happiness'

와 명예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자기다움'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꼈죠. 음악적 테크닉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비교와 거절에서 오는 열등감도 많았어요. 음악가로 보낸 15년의 세월 덕에 제가 추구하는 창작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더 솔직하게 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또 드러내고 싶어요.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주제를 작업으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음악과 미술 사이, 그는 한 장르에 치우치지보다 장르를 넘나들며 상호작용을 모색하려 한다. 가령 같은 제목의 작품과 앨범 수록곡을 발견할 수 있다. "i failed again, but that's okay"라는 같은 제목의 곡과 그림이 있어요. 물감이 마르는 동안 고요히 그림을 응시하다 멜로디가 떠올라 작곡한 곡이에요. 이 곡을 듣는 누구든 어떤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감상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는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고민이 담긴 주제를 그림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는 '뉴노멀new normal', '시poetry', '노래song', '자기부인self denial'입니다. 4가지로 나눠 각각의 주제와 작업 방식을 달리했어요.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에 대한 질문을 패턴과 기호로 풀어냈고, 시를 쓰듯 글귀를 추상적으로 시각화한 작업을 시도했죠. 또 곡을 만들거나 음악을 들을 때 느낀 감정을 캔버스에 옮기거나 신앙을 주제로 표현해보기도 했어요." 그는 언젠가 기후변화나 생태계 같은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팬데믹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확신

할 수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의 삶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든, 내면에서 비롯된 감정든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녹여내는 것을 예술적 본질이라 결론 내렸다. 내면의 진실성. 작가 유현석이 결론 내린 그의 예술적 가치관이 어떤 방식으로 멜로디와 캔버스에 녹아들지 자못 기대된다.

**유현석** 영어 이름 마이크 유를 줄여 '마이큐'라는 닉네임을 지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홍콩에 이민을 갔고 고등학교 시절 홍콩 인디 레이블에서 펑크록 밴드로 활동하며 음악을 시작했다. 영국 켈Keele 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 한국의 인디 음악 신에 매료되어 자신의 레이블, 큐스테이션을 설립했다. 2007년 1집 <스타일뮤직Style Music> 정규 앨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9장의 정규 앨범, 54장의 EP 앨범을 선보였다. 뮤지션으로도 혼자 모든 작업 과정을 해결하며 집중해온 만큼 회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 자연 속 작은 오두막, 마이크로 캐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건축에 관심을 두는 건축가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 캐빈.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대자연 속 코티지부터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고 어디든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는 모듈러 캐빈까지 다채로운 작은 집을 소개한다.

글 김수진기자

© Marc Goodwin

핀란드 건축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 푸이스토 아키텍츠 Studio Puisto Architects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지난해 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을 선보였다. '스페이스 오브 마인드 Space of Mind'는 이름처럼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집에서만큼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잊은 채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디자인 회사 프로토스 데모스 Protos Demos, 가구 브랜드 메이드 바이 초이스 Made by Choice와 협업해 완성한 오두막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듈식으로 설계해 설치가 간편하다는 것. 건물을 이루는 각각의 구조물을 헬리콥터나 크레인으로 운반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목재로 구성

## 마음의 평화를 위한 오두막 스페이스 오브 마인드

해 깊은 숲속이나 외딴섬 등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조립식으로 이뤄져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침실·홈 오피스·홈 짐·명상실 등 여러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 나무로 제작한 못을 슬롯에 넣어 조립하는 모듈 시스템으로, 구조를 재조립하거나 붙박이 가구를 제작하는 방식을 통해 원하는 대로 손쉽게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m<sup>2</sup>의 작은 공간으로 디자인했으며, 오두막을 이루는 패널은 모두 친환경적인 핀란드산 목재로 구성했다. 첫 번째 스페이스 오브 마인드는 헬싱키에서 자동차로 30여 분 떨어진 포르보 군도의 노두에 자리해 있다.

studiopuisto.fi



© Marc Goodwin



© Marc Goodwin



## 전통 산장의 재해석 마운틴 레퓨즈

침엽수가 빼곡히 늘  
어선 웅장한 산등성  
이를 배경으로 세워

진 사선형 지붕의 모던하고 작은 오두막. 이탈리아 건축가 마시모 그노키(Massimo Gnocchi)와 파올로 다네시(Paolo Danesi)가 설계한 조립식 캐빈 '마운틴 레퓨즈(Mountain Refuge)'다. "사용자가 자연과의 연결성을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산장의 형태를 참고했다. 전형적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외관에 개성을 더하고 내부 공간의 퀄리티를 향상시켰다." 건축가의 설명이다. 마운틴 레퓨즈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합판으로 제작했으며, 비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외벽에는 소나무 타르를 덧칠했다. 기본 구조는 2개의 모듈로 이뤄진 총 24㎡(약 7평) 규모의 건축물인데, 원한다면 12㎡(약 3.6평) 모듈 하나를 더 추가해 면적을 확장할 수 있다. 조립과 이동, 설치가 간편한 것은 기본. 나무 본연의 질감을 살려 아늑함을 더한 내부에는 싱크대와 스토브가 놓인 작은 주방, 샤워 시설을 겸한 욕실 등을 갖췄다.

[www.themountainrefuge.com](http://www.themountainrefuge.com)

© Massimo Gnocchi

경이로운 대자연을 기반으로  
삶의 터전을 꾸린 뉴질랜드  
사람들은 환경과 생태계에 미

## 대자연 속 유리 캡슐 퓨어포드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으로 유명하다. 여행이나 휴양 역시 주변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특히 최근 주목받는 것이 작고 스마트한 오두막이다. '퓨어포드(PurePods)'는 뉴질랜드의 카후타라, 와이파라 계곡, 뱅크스반도 등에 위치한 5성급 유리 오두막. 각각의 공간은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기 힘든 대자연 속에 자리해 주변 지형을 최소 10~15분 이상 직접 걸어야도 탈할 수 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온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인 만큼 와이파인과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태양열로 전력을 공급해 전기와 온수를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최고급 리넨 침구, 친환경 연료 히터, 작은 주방과 바비큐 그릴 등을 고루 갖춰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다. 울창한 숲속, 구불구불한 언덕길 등을 산책하며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온전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사방이 유리창으로 이뤄져 있어 침대에 누워 24시간 편안하게 주변 경치와 밤하늘, 일출 등을 마음껏 감상하기 좋다.

[www.purepods.com](http://www.purepods.com)



© Tourism New Zealand



© 11h45

프랑스 알자스 지역의 작은 마을 브라이튼바흐 Breitenbach에는 독특한 호텔이 자리해 있다. 나무 패널로 지은 초소 같기도 하고 레고 블록으로 쌓은 작은 집을 한데 모은 마을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곳은 지

난해 오픈한 '브라이튼바흐 랜드스케이프 호텔 48도 노르Breitenbach Landscape Hotel 48 ° Nord'. 노르웨이 건축 스튜디오 레이올프 람스타드 아키텍터Reiulf Ramstad Arkitekter가 프랑스 건축 스튜디오 ASP 아키텍처와 함께 설계한 친환경 호텔로, 유럽연합의 생태 보호구역인 '나투라Natura 2000'에 속해 있는 주변 환경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면서 독립적인 휴식이 가능하다.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만끽하는 동시에 지역 요리와 주변 생태계를 경험하면서 온전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 프랑스 대자연과 노르웨이 캐빈의 만남 브라이튼바흐 랜드스케이프 호텔 48도 노르

공간을 위해 건축가는 노르웨이의 전통 캐빈인 휘테 Hytte를 재해석했다. 건물은 총 14동으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치, 거리, 디자인 등을 고려했으며 모두 목재로 지었다. 가운데 발코니를 품은 U자 형태

의 볼륨이 특징인 2베드룸 캐빈 '피엘Fjell', 산의 광활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날씬하고 길쭉한 형태의 1베드룸 캐빈 '트리The Tree'와 '아이비 휘테Ivy Hytte', 슬로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해 거동이 불편한 투숙객이 머물기 좋은 '글라스Glass' 캐빈까지 총 4가지 형태를 갖췄다. 람스타드는 "프랑스와 노르웨이라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공통점을 찾는 동시에 사이트에 숨어 있지만 사라지지 않고, 자연을 보여주면서도 현대적인 건축물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한다. [hotel48nord.com](http://hotel48nord.com)



© 11h45



© 11h45

상하이 기반의 건축사사무  
소 ZJJZ는 2018년 중국 환  
제团结의 외딴 마을에 10

## 무공해 농지 위 작은 집 우드하우스 호텔

동의 단층 목조 주택으로 이뤄진 '우드하우스 호텔 Woodhouse Hotel'을 설계했다. 관광을 통해 농촌의 빈곤을 개선하려는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첫 과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중국 대다수의 오래된 지역이 고유한 건축양식을 띠는 반면, 이렇다 할 전통 주거 형태가 없던 마을을 위해 ZJJZ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인 아름다운 자연과 무공해 농지를 모티브로 삼았다.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축물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것은 물론, 철저한 부지 조사를 통해 기존 지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다. 외관 디자인 역시 주변 환경, 소박한 시골 분위기와와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인 세모, 네모, 마름모꼴을 차용했다. 탄화 목재로 마감한 파사드의 짙은 색이 주변 풍경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각 건물의 형태에 맞춰 내부에 낸 다양한 모양의 창이 조망의 즐거움을 더한다. [www.zjjz-atelier.com](http://www.zjjz-atelier.com)



© ZJJZ Atelier

'누구나, 어디에서든 손쉽게 조립할 수 있는 오두막 키트'. 캐나다 오두막 제작

## 조립식 키트로 완성하는 오두막 더 캐빈

회사 '백컨트리 허트 컴퍼니 The Backcountry Hut Company(BHC)'가 추구하는 제품이다. 아웃도어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윌슨 에드거 Wilson Edgar와 건축가 마이클 레키 Michael Leckie가 2015년 설립한 이 회사는 야외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아늑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한 오두막 키트를 소개하고 있다. 라인업은 총 4가지. 10m<sup>2</sup>(약 3평) 크기의 A프레임 형태로 싱글 침대룸이나 명상실, 작업실 등으로 활용하기 좋은 '시스템 00', 가족이나 소규모 그룹이 함께 사용하기 적합한 185m<sup>2</sup>(약 55평) 규모의 '시스템 01', 마스터 침실과 실내 욕실을 갖춘 복층 형태의 '시스템 02', 전기 사우나 시스템으로 최대 6명이 사용 가능한 '시스템 S' 등이다. 각 시스템은 4~5명의 설치 인원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면 조립할 수 있으며, 무거운 기계 없이 단계별 조립 가이드를 참고해 완성 가능하다. 단, 올해 처음 선보인 프라이빗 사우나 시스템 S는 기술적 특징으로 인해 조립식이 아닌 완제품으로 배송한다.

[www.thebackcountryhutcompany.com](http://www.thebackcountryhutcompany.com)



© The Backcountry Hut Company

# VIRTUAL INFLUE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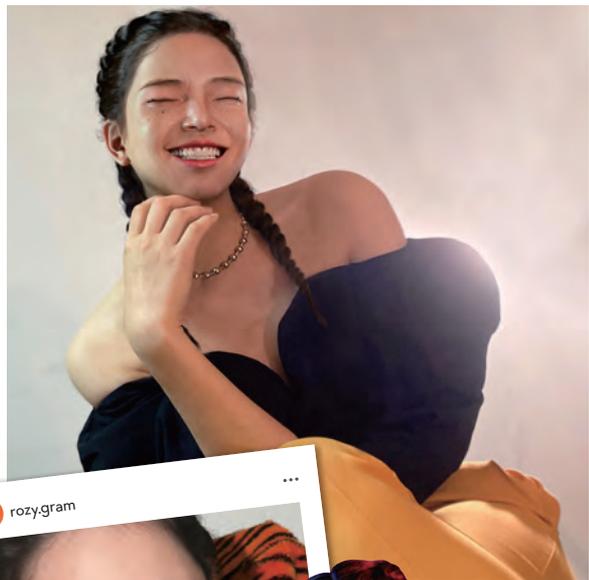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큰 이슈를 모은 '가상 인플루언서'. 실존 인물처럼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인스타그램 속 유명인이 알고 보니 사이버 캐릭터였다는 사실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개성 있는 외모에 성격과 직업 등 구체적인 특징까지 갖춘 대표적인 가상 인플루언서 6인을 소개한다.

글 최윤정기자

## 오로지 **Oh Rozy**

2020년 8월부터 인스타그램 활동을 시작한 오로지는 약 3개월 만에 1만여 명의 팔로워를 모은 국내 첫 가상 인플루언서다.

처음에는 디지털 존재임을 밝히지 않다가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 시점인 작년 12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공개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그룹 '사이더스 스튜디오 엑스Sidus Studio X'의 작품으로, Z세대가 선호하는 동양적인 외모와 서구적인 신체에 재기 발랄한 'ENFP' 성향을 반영했다. 오로지는 여행이나 패션, 러닝, 예코 라이프에 관한 콘텐츠를 위주로 팬들과 소통한다.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가상 모델 슈두Shudu와 함께 촬영한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rozy.gram



가상 인물임을 밝히기 전, 2020년 8월에 게시한 사진.



## 김래아 **Keem Reah**

LG 전자가 AI 기술로 구현한 가상 인간, 김래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 개막에 맞춰 진행된 LG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특별한 연사로 등장해 3분간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름은 '미래에서 온 아이'를 뜻하며, 서울에 사는 23세 뮤지션이라는 설정이다. 지난해 8월 캐릭터에 맞춰 첫 번째 자작곡 'Comino Drive'를 공개한 바 있다. ©reahke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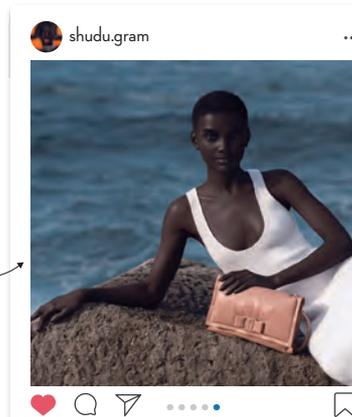


## 슈두 **Shudu**

영국 출신 사진작가 캐머런 제임스 윌슨Cameron James Wilson은 패션 업계에서 쌓은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모델을 창조했다.

2017년에 등장한 슈두다. 영국 국적을 가진 슈두는 인스타그램 가입 1년 만에 8만5000팔로워를 거느리며 남다른 화제성을 자랑했다. 디올, 켈빈 클라인과 협업했고, 2018년 또 다른 가상 모델인 마고Margot, 지Zhi와 함께 발망의 광고 캠페인을 장식하며 내로라하는 톱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비바 보우' 백을 홍보하는 슈두.



유명 브랜드의 러브 콜을 받게 된 성공 요인은 실제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의 뛰어난 실사 표현이다. 현재 크리스찬 루부탱, 살바토레 페라가모 같은 브랜드는 물론, 삼성 '갤럭시 Z폴드' 홍보에도 참여하며 발 넓은 행보를 이어가는 중. ©shudu.gram

**릴 미켈라**  
**Lil Miqu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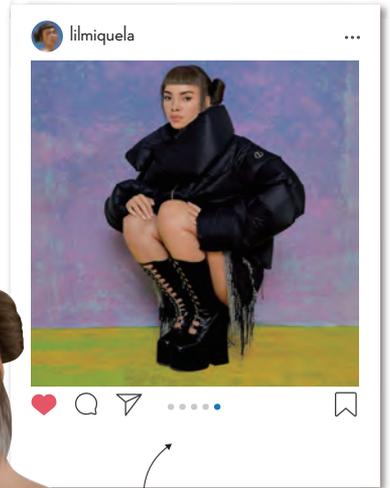
19세 미국 가수라는 설정의 릴 미켈라는 명실상부 가상 인플루언서

계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무려 301만 명, 2020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약 130억 원에 이른다. 처피 뱅 앞머리에 둥근 올림머리, 짙은 주근깨가 매력적인 이 소녀는 앱 전문 개발 회사인 '브러드Brod'에서 탄생시켰다. 성 소수자를 응원하고 청소년 인권을 수호하는 등 팬과 소통하는 것을 넘어 소셜 미디어를 창구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까지 표출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릴의 이색적인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0년 미국 가수 테야나 테일러Teyana Taylor와 함께 작업한 곡 'Machine'을 발표했으며, 자신을 모델로 내세운 의류 브랜드 '클럽 404'도 론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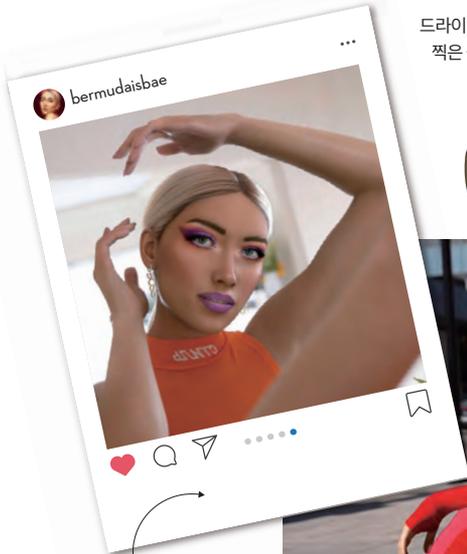
© lilmiquela



브라질계 미국인 설정의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



릴 미켈라가 <유포리아> 매거진의 디지털 커버를 장식했다. 몽클레르 패딩에 마크 제이콥스의 레이스업 부츠를 매치한 모습이다.



드라이빙 중 찍은 셀피.



색색의 아이샤도, 날렵한 아이라인 등 뷰티 유튜버 제임스 찰스 James Charles의 스타일을 오마주한 버뮤다.

**버뮤다**  
**Bermuda**

브러드사가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며 2016년 릴 미켈라에 대적할 뮤지션 캐릭터를 발표했다.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의 모습을 본뜬, 금발 머리의 버뮤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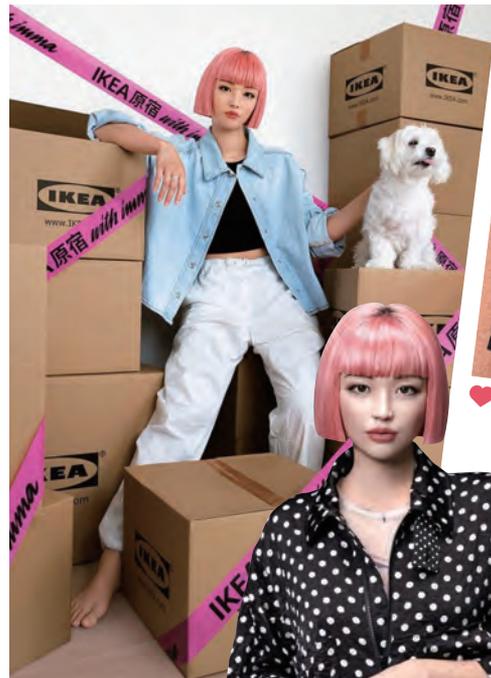
그 주인공. 버뮤다는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고급 호텔에 머물며 브런치를 즐기는 화려한 일상을 팬들과 공유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정치색도 거침없이 드러낸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걸까. 버뮤다는 2019년 릴 미켈라의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을 시도했다고 직접 밝혔는데, 이 사건은 <엘르>, <보그> 등 해외 유명 잡지에 스캔들처럼 언급되며 그의 유명세를 높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음악 서비스 채널 '스포티파이Spotify'를 통해 싱글 앨범을 공개한 버뮤다는 릴 미켈라와 함께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Under the Bridge'를 커버하기도 했다.

© bermudaisbae

**이마**  
**Imma**

일찍이 가상 캐릭터가 문화로 자리 잡은 일본에서 기존의 애니메이션풍 캐릭터가 아닌, 실존 인물 같은 이마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다. 2019년 일본 잡지 <CG월드>의 2월호 표지 속 분홍색 단발머리로 주목을 받은 이마는 CG 전문 회사 '모델링 카페 Modeling Cafe'가 개발한 가상 모델이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캐릭터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미술관에서 전시 작품을 감상하는 이마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2020년 4월 이케아 하라주쿠 지점의 모델로 발탁된 이마는 같은 해 8월 해당 지역의 이케아 매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먹고 자거나 요가와 청소를 하는 등 자신의 다양한 일상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이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많은 시민이 실제 사람으로 착각했다는 후문.

© imma.gram



일본 디자이너 아마모토 요지가 전개하는 패션 브랜드 Y's 의상을 착용한 이마.



잡티 없는 새하얀 피부에 붉은색 계열의 '디올 어딕트' 립스틱이 잘 어울린다.

# GO ALONE

꽃이 피고 잔디가 녹색으로 물드는 4월, 나들이 계절이 돌아온다. 혼자여도 괜찮다.  
테마에 맞는 아이템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테니까.

GUEST EDITOR LEE SEUNGRYUL PHOTOGRAPHER PARK WONTAE

## Picnic

방수 및 방진 기능을 갖췄으며, 최대 43시간 재생이 가능한 원형 블루투스 스피커 '베오플레이 A1'은 뱅앤올룹슨 모노그램 태피스트리 마스크 커버는 루이비통. 걸점 커버는 기본, 광채 연출에도 효과적인 '르 프로텍터 UV 주네스 에 루미에르 SPF 50+ PA+++와 '르 프로텍터 UV 미네랄 블레미쉬 밤'은 디올. 내부를 단열 처리해 음식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햄퍼는 포트넘앤메이슨. 가벼운 소재로 무게를 줄인 블랙 선글라스는 펜디 by 시원 아이웨어. 살갓빛의 '로즈 에르메스 실키 블러쉬 #로즈 아브리코 19'는 에르메스 뷰티. 보온·보랭에 효과적인 스테인리스스틸 런치 박스는 프라다. 플라워 패턴 플레이트와 골드 커틀러는 에르메스. 일출과 일몰, 날씨 정보는 물론 80여 가지의 스포츠 모드를 갖춘 '순토 9 티타늄' 워치는 아머스포츠코리아.



피크닉과 어울리는 청량하고 상큼한 맛의 '비브 클리코 옐로 라벨 브뤼'는  
엠에이치삼페인즈앤드와인즈코리아, 영화 감상에 유용한 10.9인치  
'아이패드 에어'는 애플, 핸들 바로 아래 달린 4가지  
알파벳 이니셜 참 장식이 리드미컬한 멀티컬러 미디어 백은 디올.  
자수 장식 디테일의 라피아 소재 스트로 햇은 발렌티노 가라바니.  
자몽과 오렌지 등 은은한 시트러스 향의 '포멜로 파라디 핸드크림'은 아틀리에 코롱.  
라피아 소재 슬리퍼는 펜디. 물과 땀은 물론 초미세먼지에도  
강력한 자외선 차단막을 유지하는 '클리어 선케어 스틱 SPF 50+'는 시세이도.



## Car Camping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한 글러빙 가죽과 단단한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내구성이 우수한 헤드폰 '포칼 포 벤틀리 래디언스'는 오디오갤러리. 가구 디자이너 성영모가 서프보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우드 핀 도마 겸 플레이트는 아이 카람바 by 라운디드. 블랙 자동차 방향제와 헤어 미스트 '도손' 모두 딥티크. 초경량 신소재 케이스에 러버 밴드를 매치해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인듀어런스 프로' 워치는 브라이틀링. 손잡이가 달려 등산이나 캠핑 등에도 유용한 아웃도어용 보틀은 펜디. 1:18 사이즈의 'G클래스' 다이캐스트는 메르세데스-벤츠. 식물성 오일과 에센셜 비타민을 함유해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 수분을 동시에 공급하는 핸드크림은 로라 메르시에.



전면 컬러 디스플레이와 2.27인치 후면 터치 디스플레이 등을 갖추고  
 5K 동영상과 20MP 사진 촬영이 가능한 '하이로 9 블랙'은 고프로  
 강화유리와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트랜스퍼러런트'의  
 블루투스 스피커는 오드 머리에 도포하고 따로 거품을 행키내지 않아도 돼  
 여행 시 편리한 '폼 리셋™' 린스리스 하이드레이팅 헤어 클렌저'는 아베다.  
 미니멀한 디자인에 핑크와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송아지 가죽 스니커즈는 에르메스.  
 옐로 케이스를 적용한 스마트 키는 포르쉐.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체스 게임 세트는 에르메스.  
 분쇄된 커피를 넣으면 야외에서도 바로 커피 추출이 가능한 '와코 나노프레소'는 카페뮤제오.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맥주 양조 방식으로 만들어 새콤달콤한 과일 향과 꽃향기가  
 풍부한 밀맥주 '킹덤 오브 벨지움 바이젠'은 신세계 L&B.



# Travel

1인 여행에 어울리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캐리어는 투미.

1950년대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핑크 펌프스는 프라다.

여행용 브러시와 핑크 컬러 '로지 립 인핸서' 립스틱은 에르메스 뷰티.

볼드한 스타일의 오버사이즈 스퀘어 선글라스는 디올.

1700만 화소의 해상도와 최대 ISO 2만5600을 갖춘 '라이카 D-Lux7' 카메라는 라이카.

고음질 코덱을 지원해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통화 시 마이크 4개로

또렷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베오플레이 E8' 이어폰은 뱃앤올룹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저장된 사진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셀피스퀘어 QX10'은 캐논.

슈퍼 루미노바 코팅으로 밤에도 뛰어난 가독성을 자랑하는

듀얼 타임 워치 '1858 지오스피어 블루'는 몽블랑.



애플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칩인 'A14 바이오닉'을 장착해 콘솔형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아이폰 12'는 애플. 모노그램 캔버스와 가죽으로 제작한 파우치에 카드가 담긴 플레이 카드 세트는 루이 비통. 하늘색 크리스탈 샴페인 플라워트는 생 루이. 5분 충전 시 약 3시간 동안 재생이 가능한 '솔로3 와이어리스 클럽 컬렉션' 헤드폰은 비츠바이닥터드레. 폴리세 가공한 캔버스 소재의 프린트 디테일 쇼퍼백은 발렌티노 가라바니. 피부에 닿는 즉시 쿨링 효과를 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쿨링 오일 밸런싱 컨센트레이트'는 아베다. 레몬과 재스민, 바닐라 향이 조화로운 향수 '레몬 아일랜드'는 아틀리에 코롱. 물로 씻어내지 않는 타입으로 모발에 수분 에센스로 사용 가능한 '올 인 원 리브인 컨디셔너'는 모로칸 오일.



제품 협조 고프로(gopro.com), 디올(3480-0104), 딥티크(3479-6049), 라이카(1661-0405), 라운디드(563-3555), 로라 메르시에(080-564-7700), 루이 비통(3432-1854), 메르세데스-벤츠(080-001-1886), 모로칸 오일(1666-5125), 몽블랑(1670-4810), 발렌티노(2105-2653), 뱅앤올룹슨(518-1380), 비츠바이닥터드레(788-7327), 브라이틀링(3448-1230), 생 루이-에르메스(3015-3248), 시세이도(080-564-7700), 시원 아이웨어(565-6940), 신세계 L&B(727-1685), 아머스포츠클리아(1833-4207), 아베다(6971-3200), 아틀리에 코롱(3479-8942), 애플(080-330-8877), 에르메스 뷰티(310-5174), 엠에이치샴페인즈앤드와인즈코리아(2188-5100), 오디오갤러리(926-9084), 오드(512-4091), 카페뮤제오(museo.co.kr), 캐논(2191-8500), 투미(02-539-8160), 펜디(2056-9023), 포르쉐(080-810-0911), 포트넘앤메이슨(www.fortnumandmason.com), 프라다(3443-6047)

# MEN'S BEAUTY ITEMS

바야흐로 남자도 메이크업을 하고, 공들여 피부 관리를 하는 시대.  
그루밍에 신경 쓰는 4명의 남성이 추천하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세이빙 그리고 향수 아이템을 소개한다.

글 이지형 기자 | 사진 김태선 | 어시스턴트 이영주

## Perfume

“하루의 시작과 끝을 향수와 함께할 정도로 향수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감식안을 가지고 있다. 그날의 기분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른 향수를 사용할 만큼 그루밍의 완성은 역시 향수라고 생각한다.” \_ 태에이전시 김태균 대표

**1 에디션드 퍼퓸 프레데릭 말 '뮤스크 라바쥬'** 부드러운 인상을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시나몬의 독특한 향으로 시작해 바닐라, 샌들우드가가 이어지고 앰버와 머스크의 따뜻한 느낌으로 마무리된다.

**2 킬리안 '블랙 팬텀'** 미팅, 행사처럼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 사용하는 향수.  
럼 앰슬루트, 베티베르, 샌들우드가가 어우러지며 감각적인 향을 완성한다.  
이 향수를 뿌리면 어떤 자리에 가든 향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3 바이레도 '릴 플레르 오드 퍼퓸'** 블랙 커런트, 탄제린 향이 가장 먼저 올라오면서 달콤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다가 레더, 우드로 마무리되는 잔향이 매력적이다. 차분하고 싶은 날 주로 사용하는 향.

**4 르라보 '시트롱28'** 평소에 시트러스 향은 즐기지 않는 편인데  
'시트롱28'은 조금 특별하다. 제스민, 시더, 머스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시트러스 특유의 톡 쏘는 느낌을 중화하기 때문.



## Skincare

“열이 많은 체질이다. 피부 역시 쉽게 붉어지고 열이 잘 오르는 편.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진정 효과를 선사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끈적이거나 묻어나지 않는 제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_ DGI 조광명 연구원

**1** 프레쉬 ‘슈가 페이스 폴리쉬’ 지성이면서 민감한 피부라 과도한 각질 제거는 자제한다.

대신 설탕 성분이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돕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른 각질 제거 제품과 달리 일주일에 두세 번 사용해도 피부가 따갑거나 건조해지지 않는다.

**2** 시슬리 ‘에뮬씨옹 에콜로지끄’ 낮에는 가볍지만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전하는 로션이 제격이다.

‘에뮬씨옹 에콜로지끄’가 바로 그런 제품. 겉돌지 않고 빈틈없이 흡수되는 제형이 일품이다.

**3** 라부르켓 ‘립 밤 아몬드/코코넛’ 겨울에는 히터 바람,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입술이 건조하지만 끈적이거나 답답할 것 같아 립밤은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마치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처럼 빠르게 흡수되어 입술을 부드럽게 해준다.

자기 전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 매끄러운 입술을 마주할 수 있다.

**4** 샤펜테카이 ‘자스민 앤 릴리 힐링 마스크’ 햇빛을 오래 본 날,

유난히 피부가 달아오르는 날 자기 전에 사용한다.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캐머마일,

해초 성분을 함유해 지치고 자극받은 피부를 즉각적으로 가라앉힌다.



# Makeup

“남자라도 깨끗하고 정돈된 피부, 은은한 생기는 좋은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은 가벼운 베이스로 피부 톤을 정돈하고 입술에는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한다.” \_스타일리스트 이필성

**1 베네피트 '그루밍 트위저 & 브러쉬'** 깔끔하게 정돈된 눈썹은 단정한 인상을 준다.

일주일엔 한 번 트위저를 이용해 눈썹 정리를 하고 브러시로 빗어준다.

트위저와 브러시가 하나로 합쳐져 실용적인 것이 장점.

**2 메이크업 포에버 '아티스트 하이드라블룸'** 가방이나 주머니에 늘 휴대하고 다니는 립밤. 건조한 입술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컬러를 부여해 얼굴에 생기를 더할 수 있다.

**3 샹테카이 '저스트 스킨'** 결점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피부 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가벼운 제형으로 보송하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장점이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야외 활동을 할 때도 유용하다.

**4 샤넬 '보이드 샤넬 파운데이션'** 장시간 외출할 때 사용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피부 결점을 가리면서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덕에 오랜 시간 메이크업이 지속된다.

**5 지방시 뷰티 '르 로즈 퍼펙트'** 건조한 입술을 즉각적으로 촉촉하게 가꿔주고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한다. 거울을 보지 않고도 쉽게 바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6 나스 '퓨어 래디언트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오일프리 제형으로 끈적이거나 묻어나지 않으면서 피부 톤을 깨끗하게 정리해준다. 자외선 차단 효과를 겸비해 메이크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품 협조 나스(6905-3747), 디올(080-342-9500),  
 라부르켓(1644-4490), 르라보(3440-2591),  
 메이크업 포에버(080-514-8942),  
 바이레도(3479-1688), 베네프트(080-001-2363),  
 샤넬(080-332-2700), 샹테카이(517-0902),  
 시슬리(080-549-0216), 아쿠아 디 파르마(6905-3568),  
 에디션 퍼퓸 프레데릭 말(3479-6258),  
 이솝(1800-1987), 지방시 뷰티(080-801-9500),  
 킬리안(3440-2923), 프레쉬 (080-822-9500)

## Shaving

“피부가 건조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정도로 민감하다. 매일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와 셰이빙 크림부터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까다롭게 고르고, 면도 후에는 애프터셰이브 제품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_ 포토그래퍼 하준우

**1 디올 '소바쥬 애프터 셰이브 로션'** 면도 후 민감한 피부를 가라앉히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애프터셰이브 로션. 청량한 향이 은은하게 느껴져 매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다.

**2 이솝 '셰이빙 브러쉬'**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 브러시 재질도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다. 이솝 '셰이빙 브러쉬'는 부드러운 털로 만들어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다.

**3 이솝 '더블 엷지 레이저 면도기'** 손잡이와 면도날 헤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깔끔한 면도를 돕는다. 미니멀한 디자인이 욕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다.

**4 아쿠아 디 파르마 '콜로니아 퓨라 애프터 셰이브 밤'** 면도 후 붉게 달아오르는 피부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발견한 제품. 가벼운 젤 텍스처가 빠르게 흡수되며 미세하게 상처 난 부위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여름에는 로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습력이 뛰어나다.

**5 르라보 '셰이빙 크림'** 부드러운 크림이 면도날이 쉽게 움직이도록 해 면도를 빠르고 자극 없이 끝낼 수 있다. 캐머마일, 코코넛을 함유해 피부 진정 효과도 느낄 수 있다.



# RELAXING BRUNCH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 3곳을 소개한다.

글 한동은 기자 | 사진 이창화·이경윤·기자



1



2



3



4

- 1 정원을 바라보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1층 홀.
- 2 2층에 마련된 2~3인을 위한 룸.
- 3 레드 와인과 궁합이 좋은 '부드럽게 익힌 닭고기'.
- 4 연어 대신 송어 그라브락스를 사용한 '에그 베네딕트'.

## Chez Alex

40년 된 2층 단독주택이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프렌치 퀴진을 만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회현 '제로 콤플렉스', 파리 네오 비스트로의 대표라 불리는 '르 사토브리앙'을 거쳐 청담 '6-3'에서 네오 프렌치 퀴진을 소개한 박진용 셰프의 새로운 공간, '쉐즈 알렉스'. 편하게 프렌치 다이닝을 즐길 수 있도록 브런치부터 단품, 코스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구성했다. 그는 '에그 베네딕트'에도 연어 대신 송어 그라브락스를 사용해 프렌치 요소를 가미했다. 여기에 달콤한 설탕을 버터로 익혀 올리고 가운데에는 수비드한 유정란을 담았다. 마무리는 세리 와인이 들어가 씹싸름한 사바용 소스. 베이스로 사용한 잉글리시 머핀은 지하 1층 베이커리의 서진원 셰프가 당일 만든 것으로 수플레 팬케이크처럼 두껍고 폭신한 식감을 자랑한다. 흘러내린 달걀노른자와 소스가 촉촉하게 스며들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쉐즈 알렉스는 디너의 메인 메뉴를 낮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금씩 변주했다. 대표적인 메뉴는 '부드럽게 익힌 닭고기'. 디너로 주문하면 돼지감자와 함께 서브하지만 런치에는 부드러운 버터 감자 푸레로 대신한다. 닭 육수에 부드럽게 익힌 닭다리 는 겉껍질을 바삭하게 구워 식감을 더했다. 마무리로 사용한 개성 강한 허브들은 퇴촌의 농장에서 직접 공수했다고. 박진용 셰프는 이곳의 브런치가 특히 레드 와인 과 잘 맞는다고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브런치도 와인과 함께하죠. 에그 베네딕트의 사바용 소스에도 레드 세리를 사용해 레드 와인과 먹으면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닭 요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강남구 선릉로 112길 5 @chezalex\_

## Lejardin Dosan

매장을 감싸는 긴 유리창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르자당 도산'. 플라워 숍 '르자당 플라워'를 운영하던 박유미 대표는 이탈리아 피렌체 여행 중 들른 플라워와 레스토랑을 겸하는 공간, '라 메나제레 La Menagere'에서 영감을 받아 르자당 플라워의 이탈리아 언 다이닝 공간을 오픈했다. 매장 곳곳에 놓인 꽃은 박 대표가 직접 일주일 간격으로 계절 테마에 맞춰구성을 교체한다. 3층 프라이빗 공간에서는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이곳의 테라스도 곧 개방할 예정이라고. 백색의 인테리어와 향기로운 꽃이 어우러지는 르자당 도산에서는 소규모 웨딩을 위한 대관도 이뤄지고 있다.

브런치 대표 메뉴로는 '파밍 샐러드'를 꼽을 수 있다. 르자당 도산 로고에 화기와 다이닝 그릇이 포개진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형상화한 그릇을 파밍 샐러드를 위해 특별 제작했다.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 한돈 돼지 뒷다리로 주방에서 직접 만든 프로슈토 코토, 아몬드가 들어간 루콜라 페스토, 스트라치아텔라 치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다. 당근을 잘게 잘라 볶고 휘핑크림을 넣어 오랜 시간 푹 곤 '당근 수프'는 헤이즐넛으로 마무리해 고소함을 배가했다. 이곳의 또 다른 시그너처 음료 '플라워 에이드'와 함께 즐기는 걸 추천한다. 특제 청에 카시스 시럽을 곁들여 예쁜 비주얼 못지않게 새롭다.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0-3 2층 © lejardin\_dosan



1 3층 계단에서 바라본 르자당 도산의 1층 홀.  
2 '파밍 샐러드'는 특별 제작한 화기에 제철 과일이 담겨 나오는 시그너처 메뉴.  
3 부드러운 '당근 수프'와 '플라워 에이드'.



1 내추럴하고 환한 분위기의 어프로치. 2 가장 클래식한 메뉴인 '브리티시 브렉퍼스트'. 3 지층 리테일 숍에서는 어프로치에서 사용하는 리빙 아이템과 영국 어셈블리 원두를 구매할 수 있다.

## Approach

입간판을 따라 신용산의 좁다란 골목에 들어서면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런던에 도달할 수 있다. 런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어셈블리 Assembly' 원두를 즐길 수 있는 드립 바와 정식 오픈 후 다양한 리빙 아이템을 소개할 예정인 리테일 숍을 지나면 아늑한 정원과 루프톱 공간을 갖춘 2층 주택, '어프로치'가 있다. 이곳의 린다 리 대표는 런던의 유명 한식당 '코바 Koba'를 시작으로 쇼어디치, 소호 등 런던과 파리에 5개 지점이 있는 '온더밥 On the Bab'을 통해 오랜 기간 한국 식문화를 알려왔다. 이제는 한국에서 런던의 다이닝 문화를 공유하고 싶다는 그녀가 '바오 런던 Bao London'의 이수형 셰프와 만나 진정한 런던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오픈한 것. "유럽 여행이 어려워진 요즘, 어프로치 커피에서 런던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린다 리 대표의 말이다.

'브리티시 브렉퍼스트'는 가장 클래식한 메뉴로 한 접시에 달걀, 스모크 베이컨, 소시지, 베이크드 빈, 볶은 버섯, 구운 토마토를 플레이팅하고 사워도우 토스트와 피스 타치오 잼을 포함한 4종 잼을 함께 서브한다. 계란은 스크램블, 서니 사이드 업, 포치드 에그 중에 고를 수 있다. 흥피망을 첨가해 깊은 맛을 낸 '삭슈카'와 함께 하면 더 든든한 아침을 보낼 수 있다. 올데이 브렉퍼스트를 즐길 수 있는 어프로치는 곧 와인 과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타파스 메뉴까지 준비할 예정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 154 © approachcoffee\_



# FRAGRANCE JOURNEY

좋은 향과 그에 어울리는 공간은 방문객을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시켜준다. 서울에서 떠나는 향의 여행.

글 한동은 기자



주소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로46길 50  
하우스도산 4층  
운영시간 매일 오전  
11시~오후 9시  
문의 070-4128-2124

## Tamburins Haus Dosan

하우스도산 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현대미술

전시관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 펼쳐진다. 젠틀몬스터의 코스메틱 브랜드 탬버린즈의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로 광철안, 메르세데스 비센티, 이재익, 캐스퍼 강 등 4인의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콘셉추얼한 캠페인 영상이 나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연상시키는 키네틱 오브제가 존재감 있게 움직인다. 매장 인테리어와 작품들의 메인 소재인 나무의 은은한 향과 디퓨저에서 풍기는 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블랙, 화이트 그리고 왼쪽 통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넓은 공간의 여백도 균형 있게 채워준다.

대부분의 작품은 최근 출시한 '더 셸 퍼퓸핸드'와 닮아 있다. 더 셸 퍼퓸핸드는 유기적인 셸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감각적인 패키지와 내부 조향사가 디자인한 8가지 향이 만난 핸드 케어 제품. 입구 가까이 목재 오브제는 광철안 작가의 작품으로 더 셸 퍼퓸핸드의 아이덴티티를 구체화한 작품이다. 공간이 추구하는 '자연'을 담기 위해 우드에 바니시도 바르지 않고 나무 조립을 위해 기입한 숫자도 그대로 노출했다. 탬버린즈 C&M팀 이현아 씨는 탬버린즈 하우스도산은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인 가로수길점보다 향에 더 집중한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곧 출시할 향들을 먼저 경험해보도록 디퓨저 형식으로 진열했어요. 방문객은 아직 빛을 보지 않은 다채로운 향을 작은 전시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8가지 향은 곧 스프레이 형태의 멀티 프레그런스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B1  
 운영 시간 매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  
 문의 3453-0090



## Aēsop Parnas

반투명한 커튼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노란 소

파의 실루엣이 복잡한 쇼핑몰과 대비되어 안락한 느낌을 선사한다. 새롭게 문을 연 '이솝 파르나스'는 응접실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방문객을 맞이한다. 매장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건 브라스 소재의 벽등. 독일 디자이너 파비오 보겔 Fabio Vogel이 이솝 파르나스를 위해 특별 제작한 것으로 소파 테이블과 거울까지 같은 소재로 디자인해 통일감을 준다.

이솝 파르나스의 하이라이트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프로그레스 캐비닛'. 4단 진열대에 '힐', '테킷', '마라케시 인텐스', '로주' 4가지 라인의 향수가 열을 맞춰 놓여 있다. 중앙의 태블릿에서는 감각적인 캠페인 영상이 음악과 함께 재생된다. 후각은 물론, 시각과 청각까지 일깨우는 감각의 문을 여는 것이다. 목직한 양쪽 문에도 특별함이 숨겨져 있다. 왼쪽 유리문 안쪽 행어에 코트나 스카프를 건 다음 기억하고 싶은 향기를 선택하면 직원은 향수를 분사한 후 유리문을 닫는다. 이솝의 아로마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매장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른쪽엔 12개의 작은 서랍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각 서랍엔 향수의 베이스 노트가 남아 있는 '세라믹 디스크'가 담겨 있다. 모든 향수의 잔향까지 시향하도록 설계한 것. 이솝은 "아로마를 다양한 감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한국 향수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고 한국 소비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빠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서울 파르나스몰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종이 쇼핑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코튼백에 담아주는 환경을 생각하는 이솝의 행보는 유명하다. 이솝 파르나스는 더 나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종이 시향지의 사용을 멈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향을 더 오래 간직하길 원하는 방문객에게 코튼에 향을 뿌려 증정하는 시스템을 시험 중이라고. 이때 페이스럴 코튼을 사용하므로 이후 손수건이나 배스 타월로 활용할 수 있다.



사진 이창화기자



## Granhand Mapo

경의선 책거리에 오픈한 그랑핸드의 네 번째 매장은 기존 매장과 다른 거친 분위기를 지녔다. 그랑핸드 브랜드 담당자

는 “북촌점과 소격점은 한옥 매장으로서 고즈넉한 무드를 풀어냈다면, 마포점에서는 그랑핸드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도 공간을 통해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한다. 매장의 기둥과 선반의 다릿발로 ‘한옥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고자재’를 선택한 이유다. 이미 다른 공간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썼던 소재를 새로운 존재감을 가진 재료로 탄생시킨 것. ‘질감’에 가장 집중한 마포점의 또 하나 특별한 소재는 파라핀이다. 파라핀은 제 몸을 태워 빛을 내는 소재지만 이곳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매장 곳곳에 오브제로서 놓여 있다.

‘그랑핸드 마포’는 향수, 디퓨저, 캔들 등 다양한 방향 제품을 시향할 수 있는 1층과 인센스, 오일 등 내추럴 라인이 있는 지하 1층으로 이뤄져 있다. 1층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캡슐에 주문서를 담아 지하 카운터로 굴러 보내는 연결 파이프가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그랑핸드는 단순히 향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닌 다양한 매력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랑핸드의 성격·취향·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필름 사진 공모전, 캠페인지 <브레스 Breathe>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려 해요. ‘일상에 스며드는 향’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방향 제품뿐 아니라 핸드 워시 등 더 다채로운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7길 9  
 운영 시간 매일 낮  
 12시 30분~오후 10시  
 문의 333-6525

## Blüte Hannam

북적이는 한남동 메인 카페  
거리와 조금 떨어진 골목의

주택들 사이 향이 꽃피는 곳, '블뤼떼'. 여행을 좋아하는 홍소영 대표가 남프랑스 연안을 드라이브하다 우연히 발견한 '라 크루아발메르 La Croix-Valmer'의 한 호텔에 서 영감 받아 만든 공간이다. 바랜 듯한 테라코타색 벽지가 남프랑스의 돌담을 연상시키고 빈티지한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샹송과 빈티지 가구들이 방문객을 다른 시공간으로 옮겨준다. 많은 방문객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한남동 매장을 채우는 향은 '684-88'. 이곳으로 매장을 이전하면서 특별히 제작한 제품으로 매장의 번지수에서 이름을 따왔다. 오래된 서랍 속에서 찾은 보물 같은 일기장이 떠오르는 따뜻한 엠버와 릴리, 머스크의 조화를 즐기다 보면 진저의 내음이 올라오는 매력적인 향이다. 시공간 여행을 하는 듯한 한남점과 잘 어울리는 무드다.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홍 대표는 예쁜 것을 모아 공간을 꾸미는 것을 좋아해 브랜드를 시작했다. 시그너처 제품인 디퓨저는 용액의 색상을 초록색 혹은 붉은색 등으로 자신의 공간 무드에 맞게 제작할 수 있다. 오브제 캔들, 클래식 마블 태블릿 같은 형태가 아름다운 향 제품 외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직접 수집한 빈티지 제품을 판매한다. 우드나 브라스 소재의 앤틱 캔들 홀더와 캔들 스너퍼 등, 블뤼떼의 향기와 잘 어울리는 다양한 컬렉션을 자랑한다. "소중한 나만의 공간에 함께하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맡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기억을 품을 수 있는 블뤼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20여 종의 프리미엄 오일을 직접 시향하고 블렌딩해 나만의 향수를 만드는 원데이 조향 클래스도 운영 중입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나만의 향기를 찾아보세요."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78  
운영 시간 화요일 ~ 일요일 낮  
12시 30분 ~ 오후 7시  
(월요일 휴무)  
문의 070-7670-8950



# DESIGN SPOT

#오늘의숨 #디자인스팟

디자인 스팟은 <럭셔리>, <럭셔리M>, <디자인>, <행복이 가득한 집>, <스타일 H> 등을 발행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와 마케터가 선별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상업 공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매장 등 콘셉트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모아 각 매체의 지면과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디자인 스팟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 (@designspot.dh)과 네이버 포스트(c11.kr/designspo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IGITAL LAUNCHING

새로운 자동차를 소개하는 통로가 디지털로 한정된 요즘, 임팩트 있는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내는 론칭 행사가 눈길을 모은다.  
 올봄 디지털 론칭에서 가장 주목받은 4대의 신차를 소개한다.

글 이영체 기자



## Audi e-tron GT

'e-트론'의 성공적인 론칭으로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아우디에서 미래 전동화 전략을 이끌 '아우디 e-트론 GT'를 공개했다. 아우디 AG CEO 마르쿠스 듀스만 Markus Duesmann은 "미래에 대한 아우디의 해석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그란 투리스모"라고 설명하며 "프리미엄 자동차의 진가를 보여주는 외관 디자인과 인상적인 주행 성능을 통해 전기 모빌리티를 감성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4인승 시트에 넓은 적재 공간을 갖춰 아우디의 상징적 디자인과 편안함, 주행 역학을 모두 담았다는 평가를 얻었다.

▶ **DESIGN** 낮고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으로 완성한 덕분에 항력 계수가 0.24에 불과하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더욱 시트 포지션을 낮추고, 4인승 시트 구성에 넓은 적재 공간을 갖췄다.

▶ **POWER** 86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 시 최대 488km까지 주행 가능하다(WLTP 기준). 기본 모델은 모터 출력 476마력(350kW)과 제로백 4.1초, 고성능 모델은 모터 출력 598마력(440kW)과 제로백 3.3초를 기록했다.

▶ **POINT** e-트론 GT 생산 준비 과정부터 철저하게 디지털 전략을 적용했다. 공장 가동 전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하고, VR 기술을 활용해 민감한 부품을 운반하는 특수 컨테이너를 설계했다.





## Mercedes-Maybach GLS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S’와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클래스’의 장점을 결합한 최상위 럭셔리 SUV.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 마케팅 부문 총괄 부사장 마크 레인Mark Raine은 “궁극의 럭셔리에 대한 가장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이 차를 소개한다. 실내에는 디지털 가죽 패키지를 기본 적용했으며 시트뿐 아니라 루프 라이너까지 최고급 나파 가죽을 사용했다.

▶ **DESIGN** 보닛 위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삼각별을 달고, D필러에는 마이바흐 엠블럼을 새겼다.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29개의 고풍택 크롬 바를 수직으로 배열하고,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 **POWER** 4리터 V형 8기통 M177 가솔린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557마력, 최대토크 74.4kg·m을 발휘한다.

▶ **POINT** 차량 문을 열 때 차체가 약간 낮아지며, 조명이 포함된 알루미늄 전자식 러닝 보드가 소리 없이 나타나 타고 내리기 편하다. 6가지 투톤 페인트 외장 컬러를 옵션으로 제공해 외관의 완성도를 높였다.





## Volvo C40 Recharge

2025년까지 전 세계 판매의 50%를 순수 전기차로,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성한다는 전동화 비전에 맞춰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차로만 출시한 쿠페형 SUV 모델. 론칭 행사에서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등장한 볼보자동차 최고 기술 책임자 헨릭 그린Henrik Green은 “C40 리차지는 볼보의 미래를 상징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순수 전기차 모델을 판매한다는 계획으로, 별도의 가격 협상 없이 정찰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DESIGN** SUV의 모든 장점을 갖추면서도 더욱 낮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최첨단 픽셀 기술을 적용한 헤드라이트를 포함한 새로운 얼굴, 하부 루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포인트.

▶ **POWER** 프론트 및 리어 액슬에 위치한 트윈 전기모터는 40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한 78kWh 배터리로 구동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약 420km.

▶ **POINT** 가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볼보 모델. 시트 포지션을 좀 더 높이고, 다양한 컬러와 데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Ioniq 5

현대차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이자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브랜드 최초 전기차. 가죽 시트 일부와 도어 팔걸이에 재활용 투명 페트병을 분쇄·가공한 직물을 사용하고 도어와 대시보드, 천장, 바닥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활용하는 등 자연 친화적 소재와 친환경 공법을 적용했다.

▶ **DESIGN** 픽셀을 형상화해 디자인한 '파라메트릭 픽셀'을 헤드램프와 후미등, 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변속 레버를 스티어링 휠 주변에 배치해 기어 봉을 없애고, 앞으로 움직이는 콘솔 '유니버설 아일랜드'와 슬림해진 콕핏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 **POWER**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통해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WLTP 기준) 주행할 수 있다.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충전기 사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하다.

▶ **POINT** 기존 현대자동차에서 볼 수 없던 이색적인 디자인의 전조등과 후미등, 깔끔한 직선 라인까지 한층 모던한 이미지를 지녔다.





# GLA로 떠난 성수동 골목 투어

탁 트인 고속도로에서 강력한 파워를 체감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좁은 골목에서 차의 진가를 발견하기도 한다. 'GLA'를 타고 'TMH성수'를 찾은 그날처럼.

글 이영채 기자 | 사진 이우경 기자 | 장소 협조 TMH성수(©tmh\_official)

## 가장 벤츠다운 콤팩트 SUV, GLA

'작은 고추가 맵다'. GLA를 인도받아 도로에 오르는 순간 이 말이 생각났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첫 번째 콤팩트 SUV, GLA는 아담한 크기와 달리 엑셀을 밟는 순간 치고 나가는 가속이 빠르고, 굴곡진 도로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M260 엔진을 탑재한 '더 뉴 GLA 250 4Matic'은 직렬 4기통 2.0리터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으로 최고출력 224마력, 최대토크 35.7kg·m을 발휘한다.

GLA는 디자인에서도 역동적인 콤팩트 SUV로 손꼽힌다. 이전보다 줄어든 전방 및 후방 오버행과 강력한 솔더 라인, 쿠페를 연상시키는 유리창 라인이 스포티한 이미지를 드러내며, 이전 모델 대비 30mm 길어진 휠베이스, 110mm 높아진 전고 덕분에 높은 좌석 포지션과 넉넉한 헤드룸의 실내 공간을 완성했다.

콤팩트 SUV면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어도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에서는 아쉽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촬영 장비를 가득 싣고 성수동으로 향하는 순간 여지없이 깨졌다. 뒷좌석 등받이를 모두 접으면 최대 1430리터까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웬만한 여행 짐은 가뿐하게 실을 수 있는 데다, 원격으로 트렁크를 여닫을 수 있는 핸드프리 액세스 덕에 짐을 싣고 내리기도 더욱 편해졌기 때문.

더 뉴 GLA 250 4Matic을 함께 시승한 포토그래퍼는 인테리어를 본 순간 "작아도 벤츠는 다르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시선을 사로잡는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 터빈을 연상시키는 5개의 원형 송풍구와 어우러져 모던한 매력을 발휘한 것. 실시간 지도 정보를 반영하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성동구 연무장7가길 8'을 입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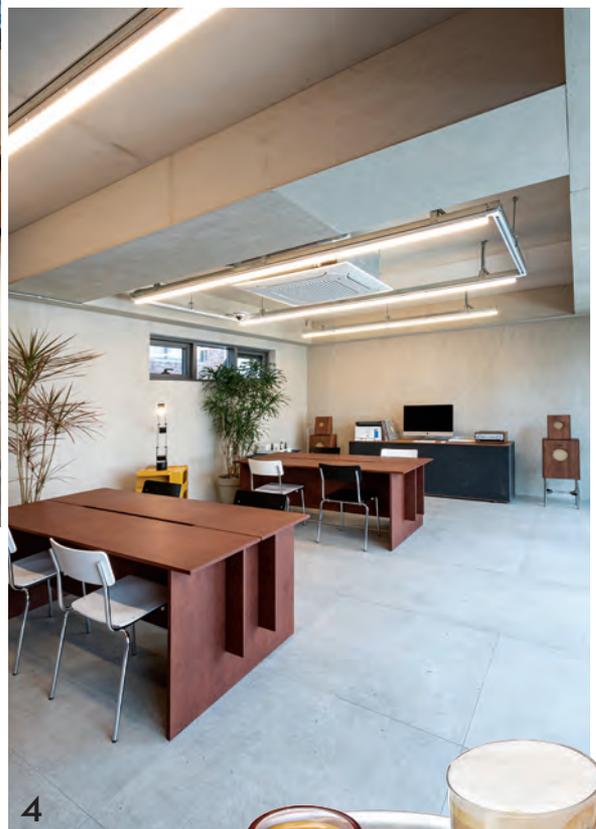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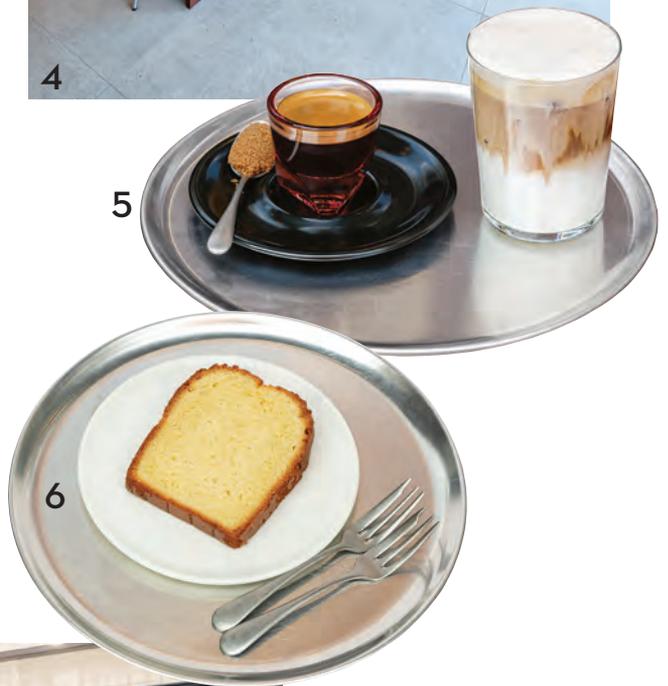
### 취미와 기호가 어우러진 공간, TMH성수

지난해 11월 문을 연 TMH성수는 다양한 오디오를 소개하는 (주)엔오의 크래프트 사업부에서 마련한 곳으로, 162.5㎡ 규모의 3층 건물과 7.5㎡ 규모의 컨테이너 카페로 구성했다. 장기찬 디렉터는 “취미를 진지하게 즐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Too Much Hobbyist’에서 따온 이름처럼 무언가를 기획하고 시도하는 모습이 다른 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설명한다. “오디오 제조 회사로 알려졌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고 싶은 것을 우리 방식대로 하는 회사입니다. TMH오디오와 TMH커피가 합쳐진 공간, 취미와 기호가 어우러진 공간이죠.”

안으로 들어서면 곳곳에서 나왕 합판을 발견할 수 있다. TMH오디오 ‘618’ 시리즈의 소재와 연결고리를 찾고 소리의 울림을 고려해 스피커 제조 합판 중 버려진 것을 재활용한 것. 음악이라는 콘셉트는 유지하되 층마다 각기 다른 스타일로 변주를 줬다. 1층은 TMH오디오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고, LP와 오브제로 이곳의 근간이 음악임을 보여준다면, 2층은 오디오 관련 전시를 하는 갤러리다. 2월에는 JBL, 3월에는 판테온 전시를 진행했다. 3층은 음료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곳이다. 로스터 겸 바리스타이자 디자이너인 홍성현 실장은 산미가 목직인 ‘먼데이 오프’, 신맛을 최소화한 ‘선데이 슬립’, 극단적인 산미의 ‘셀스테이 블루지’ 등 3가지 타입의 원두를 제안한다. “공간의 완성은 사람입니다. 오디오를 직접 만지고, 원하는 음악을 틀고, 편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이곳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내부에서는 드립 커피를, 컨테이너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메뉴를 주문할 수 있으며 파운드케이크와 다쿠아즈 등의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4



5

6



7

- 1 스포티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룬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A 250 4Matic’.
- 2 와이드 스크린 콕핏과 원형 송풍구가 모던한 매력을 자아내는 GLA 실내.
- 3 TMH성수 2층에서는 음악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가 열린다.
- 4 음료를 마시며 여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TMH성수 3층.
- 5 선데이 슬립 원두로 추출한 에스프레소와 라테 위에 차가운 얼그레이 크림이 올라간 얼그레이 라테.
- 6 담백한 플레이н 파운드케이크는 커피와 궁합이 좋다.
- 7 TMH오디오의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1층.

# CLARINS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50ml / 8만 2천원 대

자외선부터 블루라이트\*, 안티폴루션\*\*까지  
강력한 멀티 프로텍션

**NEW** 클라랑스 UV 플러스

SPF 50 / PA+++

\*시험기관 (IDEA LAB) 일자 (2019년 11월 25일) 해당 내용은 In-vitro 자료에 대한 결과임

\*\*시험기관: ㈜스킨메드 임상시험센터 기간: 2020년 10월 30일 (1일) 대상: 만 20세~54세 20명